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아모스서 강해

시온에서 안일한 자

(아모스 6:1-14)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주님의 일에 바쁘고, 성경 읽기에 바쁘고 봉사할 기회를 찾기에 바빠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일에 너무 분주합니다.

아모스의 책망은 성도들의 안일함으로 이어집니다. 안일함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고가 끝나고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집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안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유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자들, 이미 승리한 사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중에 안일을 취하는 것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안일을 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1.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니까, 예루살렘 시민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과 제도가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안일하다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홍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3절).

‘홍한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 날이 멀다고 해서 강포한 자리, 강포한 사람에게 가까워지면 자신도 강포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직접, 간접으로 징계하시고 갖가지 경고장을 발하심에도 불구하고 안일하다, 안일하다, 주님이 오시면 더 평안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6절).

성찬식을 하는 그릇,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열락을 취하려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환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환난을 말하는데 자기 백성들이 당해야 할 어려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열락만을 취하는 사람은 안일한 자입니다.

또한 시온에서 안일한 자는 열락을 취할 뿐 아니라 조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며 형제들에게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평안만을 구하며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사람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사람을 시온에서 안일한 자라고 책망합니다.

2. 안일한 자의 잘못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4절).

시온에서 안일한 자의 잘못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하며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요구와 필요에 전혀 무감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무책임하여 자신들만 시온에서 평안하다고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사마리아에서 이기고 승전을 해서 영광을 받게 되었으니 평안하다고 합니다.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는 것은 게으름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안하고, 도적질도 안하고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일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지 아니한 죄는 악한 죄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나 게으름으로 인하여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 악한 죄입니다.

3. 그 날을 위한 준비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심판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크게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위기이며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서로 죄를 죄로 간주하지 못하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나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싹이 자라서 불의한 것이 시작 되고 마침내 죄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주님의 일에 바쁘고, 성경 읽기에 바쁘고 봉사할 기회를 찾기에 바빠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일에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이들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며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한가하다고 잠냄에 빠지고 한담하다가 가는 죄를 범하고, 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에서 안일한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며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계속되는 여름 수련회

중등부: 7월28일(월)-30일(수) 아가페타운
에바다부: 7월31일(목)-8월2일(토) 아가페타운
영어예배부: 8월1일(금)-2일(토) 아가페타운

2008년 여름수련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금주는 중등부 여름수련회(부장 김시환 집사)-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자', 에바다부(부장 최용걸 집사)- '생명의 떡', 영어예배부(부장 김훈 집사)- 'Community of Joy'를 주제로 아가페타운에서 각각 열린다. 은혜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여 하나님을 찾는 천국백성으로 서도록 기도한다.

8월 한 달간 다락방 방학

영적 재충전의 기회로

계속되는 무더위로 가정 개방과 심방이 어려운 8월 한 달간 우리 교회는 다락방 모임을 잠시 쉰다. 성도들은 이 한 달 동안 영적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가족과 함께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쓰는 시간으로 삼기 바란다. 이 기간 동안 다락방장들은 성도들의 성수주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전화심방을 통해 다락방 가족들을 돌보며 교회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한다.

에너지 · 물자 절약운동

우리교회는 세계경제지표의 급락과 함께 고유가와 환경오염에 신음하고 있는 지구의 현실을 깊이 생각하며 범교회적인 절약운동을 펼치고 있다. 성도들이 에너지(자원) 절약에 위해 실천할 사항으로 에어컨 가동시 출입문 닫기, 엘리베이터 타기보다 계단 걷기, 전기 절약에 위해 전등 하나 끄기, 기름 절약에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펼친다. 또한 우리교회는 전기절약을 위해 종탑을 제외한 교회외부 야간 조명전체를 끄고 있으며 모든 등기구

인도단기선교단 금주 금요기도회 주력부대로 8월1일(금) 밤 8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

인도로 파송 받는 제8기 인도단기선교단(단장 이영기 장로)은 파송을 앞두고 단기선교단원들과 성도들이 이번 선교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금주 금요기도회 주력부대로 선다.

인도단기선교단은 다음 주일(8월3일) 찬양예배 시간에 파송을 받아 인도의 뿌내 지역 등에서 현지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도와 다양한 선교활동을 펴고 8월 12일(화) 귀국할 예정이다

단기선교단이 수많은 우상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인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

도서실 - 서울시 교육감 선거장소로

7월30일(수) 102호

우리교회는 도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102호실을 7월30일(수) 하루동안 서울시 교육감 선거장소로 제공한다.

이에따라 투표준비를 위해 투표 전날인 7월29일(화)부터 30일(수)까지 2일간 도서실을 개방하지 않는다. 이용하는 성도와 학생이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기 바란다.



21세기 교회와 전도의 새 패러다임

김재진 목사
(협동목사, 기독교문화진흥원 부원장)

그 동안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은 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목회자들(목사, 강도사, 전도사)을 모시고, 2008년 7월까지 총 33회의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그 동안 많은 신학 대학교들이 '목회자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지만, 거의 대부분 수강생들의 참여 부진으로 도중에 폐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교회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이 주관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날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렇게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중단 없이 성장할 수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항상
그 시대를 앞서
한국의 목회현장을 전인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우선 정확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과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위임 목사님의 확고한 신앙과 신학이다.

둘째는 국내의 우수한 강사진들이 매 학기 새로운 주제에 적합한 강의를 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서울교회 교우님들이 매주 월요일 참석하시는 목회자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 대접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 교우들이 매 학기 기도도 써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 동안 온 교우들의 기도와 땀으로 진행된 어은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주옥같은 주제 강연들을 하나로 묶어서 [목회자 신학 세미나 시리즈]로 발간하게 되었다. 물론 제1-6권까지는 '요르단 출판사'가 주관하여 이미 출판하였지만, 출판사의 사정으로 중단 된 것을 다시 우리 '필그림Pilgrim' 출판사가 새롭게 '제7권'부터 출판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제7권에서는 제19차 세미나의 주제인, "21세기 교회와 전도의 새 패러다임"이란 주제에 대한 특강들이 게재되었다. 이제부터 [목회자 신학 세미나 시리즈]는 계속해서 편집, 출판될 것이다.

편집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점은, 우리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항상 그 시대를 앞서 한국의 목회현장을 견인하는 '주제'들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이 모든 통찰력은 한국교회의 목회신학을 향도해 가고자 하는 우리 서울교회의 뜻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흔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화의 기독교화

천국일본 양성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

우리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에서는 지난 3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합창단원을 모집하여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으로 명명하고, 8월 둘째주 창단에배 및 첫 번째 발표회를 위해 맹연습을 하고 있다.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단장 : 오정수 장로, 음악감독 : 이영조 집사, 지휘 : 강영모 선생, 반주 : 김동아 선생)의 창단 목적은 사회 문화의 선도자로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함에 있다. 현대는 문화와 예술이 삶의 중요한 수단으로, 그 중에서도 음악은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으며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술 분야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은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독교 예술단체인 것이다.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원장이신 이영조 집사님을 음악감독으로 모시고 나영수, 김명엽, 원학연, 박신화 선생 등 한국음악계의 최고 권위자이신 운영위원들과 함께 출발한다. 무엇보다 지휘자 강영모 선생은 연세대 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지난 20년간 어린이 합창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다.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의 레파토리는 클래식을 기초로 하며 바로크음악에서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주로 교회 음악으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멀지 않은 날에 명실상부한 기독교 어린이 합창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강영모 선생은 단원들에게 음악적 소양보다는 fellowship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무지개 합창단이 구성에 치우치지 않고 튼튼한 내실을 다져 먼저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합창단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이 미래 한국 교회음악을 주도하고 한국 음악 예술의 기둥들이 될 것을 소망한다. 강영모 선생은 9월 중 2차 선발을 예정하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은 이미 2010년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대회로부터 이미 초청받은바 있다. 허숙(편집부)



지효환성도 (대학부)

대학부 여름수련회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 조장을 처음 맡게 된 저를 비롯한 모든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와 충만한 기대감 속에서 임원단의 피땀 어린 손길로 준비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으며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아가페타운이라는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별로 돌아가면서 설거지와 뒷정리를 감당했는데, 흐르는 땀만큼 우리 마음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장석남 목사님을 통하여 새벽에는 열매 맺는 리더쉽을, 낮시간에는 피플퍼즐 세미나를 통해 조원들과 함께, 나 자신과 다른 이를 알게 되어 서로 섬기는 연습을 하였고, 그로 인해 너무나도 큰 사랑이 싹트는 과정을, 저녁집회의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 구원이 아닌 열매 맺는 크리스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석남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그 어느 때 보다는 뜨거웠습니다. 마지막날 밤에는 새벽 두 시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날의 뜨거웠던 기도회 시간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지금 대학부는 서로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매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학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해 앞으로 대학부를 더 부흥시키시며,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 날 정금보다 귀한 특강으로 기독교 청년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이종운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부 모두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이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크로싱

“예수님은 남조선에만 계시니까 지구 어디에 다 계시다면서 왜 북조선에는 없습니까?”

”

얼마 전 금강산 관광을 떠났던 한 중년부인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이른 새벽 바닷가로 나섰던 여인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한 사람에게서 허락되지 않는 금지구역, 경계선 울타리 저편을 다녀온 대가였을까요?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나라, 우리와 하나이면서 둘이 된 나라, 북한과 우리를 가르치는 경계선은 오늘날 국경의 의미를 넘어서 생사의 경계선이 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야 했던 탈북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크로싱>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저 북쪽 절반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영화입니다. 함경도 탄광마을에서 중국 연변을 거쳐 대한민국과 몽골을 가로지르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상이 지워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 받는 사람들,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면서 신음하는 사람들, 성경을 두 손에 들고도 그 안의 말씀을 깨우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펼쳐집니다. 극심한 식량난과 가족의 죽음과 같은 무서운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목숨을 걸고 금지된 경계선 너머, 이편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허락되지 않는 것, 금지된 것, 그것은 크로싱(교차, 횡단)입니다. 반세기 넘게 무너지지 않는 장벽은 비단 휴전선 뿐 아니라 우리들의 무관심이 아닐까 합니다. 극중에서 주인공이 고통 속에 외치던 한 마디의 대사가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예수님은 남조선에만 계시니까, 지구 어디에나 다 계시다면서 왜 북조선에는 없습니까?” 이념과 사상의 경계, 국경의 장벽, 생사의 갈림길을 하나되게 하고,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랑과 부활의 십자가를 기다리는 저들을 향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소정(편집부)



여름수련회 초대 - 에바다부

생명의 떡

임규현 목사(에바다부 지도)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는 7월, 주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에바다부 2008년도 여름수련회를 7월31일부터 8월2일 아가페 타운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동안 에바다부 가족들이 바쁜 일상생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양식을 만족스럽게 받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은혜 넘치는 수련회가 될 것을 믿고 “생명의 떡”을 주제로 하여 풍성한 양식 얻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부 가족들과 농인들과 수화를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떡 잔치에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은 곧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며 이번 에바다부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와 성경수화통독을 결합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바다부 가족과 여러분이 여름수련회를 통해 생명의 떡을 풍성히 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에바다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에바다부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소프라노 조경화 교수의 독창으로 준비된다. 조 교수는 연세대학교 음악 대학을 졸업하고 이태리 오지모 아카데미와 토리노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였다.

국내에서는 동아 콩쿠르와 KBS 콩쿠르 등에 입상하였고 이태리 시에나 국제 콩쿨, 파르마 베르디 콩쿨, 외에 많은 국제 콩쿨에서 우승하였으며 현재 서울장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멘델스존 작곡의 칸타타 사도바울 중에서 예루살렘 외 2곡으로 찬양 드린다. 반주는 우리교회 김복희 집사가 수고한다.

2008 성경암송대회

금년 성경암송대회는 예선을 10월 19일(주)에 본선을 10월 24일(금)에 갖는다. **암송범위는 베드로전서 1-5장 전장이다.**

English Ministry Retreat

community of joy

Rev. Joshua Cho

Praise the Lord! Our English Ministry is so excited about our first, ever retreat! We will be using our retreat to pray through our vision and to build our community. Our vision



is to reach out to the foreigners and English speakers all across Daechi-dong and the greater city of Seoul. Our hope is that they will grow into leaders who will one day go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as powerful Christian witnesses and missionaries for the spreading of God's kingdom all over the world to the glory of God.

In order to accomplish that vision, we believe that our ministry needs to be more than a welcoming and friendly environment, but a spiritual shelter where foreigners and English speakers will experience the gospel at work. To become that shelter, our ministry will focus on becoming a community of joy, humility, and peace. For this retreat, we will focus on the theme, "Community of Peace."

In order to become a "Community of Peace," we want to learn and apply the principles found in the book, The

world, in that He sent His only Son to die on the cross, so that those who were once His enemies might become His friends and His people.

Now that God has made peace with us, we are called to make peace with others. This involves learning how to approach conflict, not as peace-fakers or peace-breakers, but as peace-makers. We must identify the log in our own eye, and repent for our own contributions to conflicts. This also involves the hard, patient work of restoring others who have sinned, and reconciling with them. In learning how to resolve conflict, we can not only resolve our own conflicts, but also become peacemakers to others who are having conflict. May God establish our ministry as a community of peace, so that we might become a shelter for foreigners and English speakers all throughout Seoul!

동정

■ 이종윤 목사는 스웨덴 룬드대학에서 열리는 세계신약학회(SNTS) 63차 년차대회 참석차 7월28일 출국한다.

오정수 장로 하인선 장로 이동귀 집사는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7월30일 출국하여 이종윤 목사와 함께 덴마크, 스웨덴, 독일의 장애인·노인복지 시설을 견학 후 8월8일 귀국한다.

- 전화번호변경: 이계홍 집사(14교구) 010-2653-1100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전도회(7.27) 에스더전도회(8.3)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아가페 타운 건립 위해 헌금을 바친 이,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2. 아가페 타운 건립이 방해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3. 무더위와 장마철에 온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4.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5. 정국이 안정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